

태극기 거부, 친일매국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

의안 번호	4375
----------	------

발의연월일 : 2024. 9. 26.

발 의 자 : 박선원 · 정일영 · 이학영
정진욱 · 김 윤 · 김민석
문금주 · 이해식 · 최민희
송재봉 · 이훈기 · 허성무
박지원 · 박민규 · 김병주
박희승 · 신정훈 · 서미화
김문수 · 신영대 · 이수진
이정문 · 김기표 · 김원이
백승아 · 추미애 · 박수현
김승원 · 정동영 · 박균택
김교홍 · 권향엽 · 전진숙
이병진 · 정태호 · 김 현
김용만 · 황정아 · 이광희
황명선 · 이상식 · 박범계
조인철 · 박홍배 · 허 영
김현정 · 장종태 · 김주영
김성환 · 정을호 · 김태선
부승찬 의원(52인)

주 문

지난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태

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양국정상이 참석한 공식 외교의전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 당시 영상을 보면, 참석자들이 의전절차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둘러보면서도 본인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07년부터 친일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한반도 위기상황시 자위대 지원 등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2009년에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세운 세계평화연구소에서 해외 친일학자에게만 수여하는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실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직하면서도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법처리 되었다.

또 지난해 4월 12일에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사건에 대해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4월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대표 실적으로 내세워진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는 그것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미 정부 당국자의 견해와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최근 KBS에 출연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하에서

일본의 사과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일본의 진실된 사죄를 바라는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이와 같이 김태호 차장은 이미 여러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안보관계 공직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친일·매국적인 발언이나 태도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본인이 반국가세력이자, 반 대한민국 세력의 대표적인 인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더 이상 국가안보의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단 한시도 용납되어선 안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호를 즉각 파면하라.

제안이유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인 김태호씨는 대통령 외국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고, 친일 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출신인사로 친일매국적인 언행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온 인사임.

그간 국가안보실 도청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는 악의가 없다는 해명 논란, 핵공유 발언 논란, 일본의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태는 국가안보의 사령탑으로 적절치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는 바임.